

O'ZBEKISTON RESPUBLIKASI OLIY VA O'RTA MAXSUS TA'LIM
VAZIRLIGI

Toshkent davlat sharqshunoslik instituti

Kim Viktoriya Nikiforovna
KIM TATYANA SERGEYEVNA
YUNUSOVA GULSHODA DILSHADOVNA
I XE SON

Koreys tili - 4

O'quv qo'llanma bakalavriat yonalishida: 5220100-sharq filologiyasi(koreys tili)

Toshkent - 2009

Kim V.N., Kim T.S., Yunusova G.D., I Xe Son.

Koreys tili-4. O'quv qo'llanma

Mazkur o'quv qo'llanma o'zbek guruhi talabalari uchun tayyorlangan to'rtinchi kitob hisoblanib, 72 soat darsga mo'ljallangan (19 hafta 4 darsdan).

Darslik o'zida 20 darsni mujassamlashtirgan bo'lib har bir dars yangi matn, yangi so'zlar, tallafuz, grammatika, leksika, mashqlar, koreys madaniyati bilan tanishtiruvchi matnlar, ibora va maqollar bo'limidan tashkil topgan.

Matnlarning asosi dialogdan tashkil topgan bo'lib unda o'sha darsning grammatikasi va leksikasi mujassamdir. Darslikning umumiy leksikasi tahminan 800 so'zdan iborat.

O'quv qo'llanma ToshDSHI O'quv-uslubiy Kengash tomonidan tavsiya etildi
(“_____” _____ 2009y, Bayonotnoma №____)

Annotatsiya

Mazkur o'quv qo'llanma o'zbek guruhi talabalari uchun tayyorlangan to'rtinchi kitob hisoblanib, 28 o'quv haftaga mo'ljallangan. (14 hafta 2 soatdan).

O'quv qo'llanmaning mazmun doirasi koreys tilidan bilim darajasi o'rta hisoblangan talabalarga mo'ljallanib, unda talabalar nafaqat koreys tili grammatikasi va leksikasi, balki madaniyati va tarixi bilan ham tanishish imkoniyatiga ega bo'ladilar. Bu esa, talabalarni koreys xalqining o'ziga xos tomonlarini yanada chuqurroq o'rganish imkoniyatini beradi.

O'quv qo'llanmaga asos qilib, Seul Universiteti tahririyati ostida nashr qilingan "Koreys tili-4" darsligi olingan.

Darslik o'zida 20 ta darsni mujassamlashtirgan bo'lib, har bir dars quyidagi bo'limlardan tashkil topgan: "Dialog", "Leksika va ifoda", "Grammatika", "Mashq", "Koreya madaniyati", "Maolq va iboralar".

Matnlar asosan dialoglardan tashkil topib, dialog mazmuni koreya xalqi turmush tarzining o'ziga xos xususiyatlarini ochib beradi.

"Grammatika" bo'limida ma'lum matnni yoritib berishda kerakli grammatik konstruktsiyalarga izoh berib o'tiladi.

"Mashq" bo'limi ikki qismga bo'linadi. Birinchi qismda, yangi materialni puxta o'zlashtirish uchun tegishli mashqlar beriladi. Ikkinchi qismida esa, talabani fikr doirasini aniqlashga yordam beruvchi mashqlar beriladiki, unda talabalar avval o'zlashtirgan bilimlari yordamida mashqlarni bajarishlari kerak bo'ladi.

"Koreya madaniyati" bo'limida talabalar koreys xalqi madaniyatiga va tarixiga oid dolzarb matnlar bilan tanishish imkoniyatlari bo'ladi.

Koreys tilidan bilim darajasi o'rta bo'lgan talabalar uchun koreys xalq madaniyati, maqollari va iboralarini o'rganish juda muhim deb hisoblaganimiz sababli, "Koreya madaniyati" va "Maqol va iboralar" bo'limlarini kiritishni to'g'ri deb bildik.

Darslikning umumiy leksikasi tahminan 800 so'zdan iborat.

1 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지언: 민수 씨, 인류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민수: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해요?

지언: 어떤 학자가 인류의 '미래 시간표' 라는 것을 발표했대요.

민수 씨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 같아요?

민수: 글썽요. 죽음이나 질병 같은 것 아닐까요?

지언: 맞아요. 그런데 2020 년엔 암이 정복되고 인간의 평균 수명이 백 살이 넘을 거래요.

민수: 그래요? 그 정도로 과학이 발전한다면 우주 여행도 갈 수 있겠네요.

지언: 그럼요. 돈만 있다면 우주 여행도 못 갈 리가 없지요. 그 학자의 시간 표에 의하면 달나라 여행은 2015 년에, 화성 여행은 2030 년에 가능할지도 모른대요.

민수: 2030 년이면 내가 몇 살이지? 예순 살 가까이 되네. 그 때 우주 여행을 하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건강을 챙겨야겠네요.

지언: 그건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2030 년엔 예순 살도 아직 젊은이일 텐데요, 뭐.

새 단어 Yangi so'zlar

인류 insoniyat

미래 kelajak

학자 olim

죽음 o'lim

질병 kasallik

암 saraton kasalligi

*최근 ohirgi vaqtda

논문 ilmiy maqola

생물 jonzot

유지하다 saqlamoq

각각 har biri

공통적 umumiy

정복하다 yengmoq	뒤 keyin
인간 inson	현실 haqiqat
평균 o'rtacha	기술 texnika
수명 hayot davomiyligi	로봇 robot
과학 ilm-fan	실용화 amaliyotga tadbiiq etish
우주 koinot	잔디 o't
-에 의하면-ga asosan	
쓸데없다- foydasiz	

문법 GRAMMATIKA

1. F/S- (으)ㄴ 리가 있다 / 없다

Shunday shaklki, unda sabab ma'nosini anglatuvchi “리” ga mavjud bo'lmoqlik “있다” va mavjud bo'lmaslik “없다” ma'nolarini anglatuvchi fe'llari birikib, ish harakat amalga oshirilishi mumkinlik yoki mumkin emasligi ma'nosini anglatadi. Odatda harakat va holat fe'llariga qo'shilib keladi.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될 리가 없다.

부인이 이렇게 늘을 리 가 없는데 이상하네.

2. Ot 에 의하다

Ushbu qo'shimcha ot bilan ifodalangan ot yoki ibora bilan birga qo'llanilib, biror bir taxmin, fikr yoki bahoning isboti bo'lishini ifodalaydi. “...에 의해” (...ga asoslangan holda, ...ga asoslanib), “...에 의해서” (... asosida) yoki “...에 의한” shakllarida qo'llaniladi.

뉴스에 의하면 오늘 밤에 태풍이 온대요.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가 무죄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3. F/S-(는/ㄴ/은/을/르) 지도 알다 / 모르다

Biror bir dalilni tasdiqlash ma'nolarini anglatadi. Odatda qo'shimcha sifatida qo'llaniladi. Har bir zamon uchun fe'lga turli xil qo'shimchalar qo'shiladi. ~는 qo'shimchasi hozirgi zamonda, ~ㄴ/은 qo'shimchasi o'tgan zamonda, ~을/르 qo'shimchasi kelasi zamonda qo'llaniladi.

이 옷이 내 동생에게는 좀 작을지도 모르겠어요.

오후에 비가 올지조 모르는데 우산을 가져가는게 어때요?

4. Ot 을\ 를 챙기다

Odatda otga qo'shilib kelib, "yig'ishtirmoq", "tartibga keltirmoq", "hozirlik ko'rmoq" ma'nolarini anglatadi.

학교 갈 시간이 다 되었는데 책가방 다 챙겼니?

밖에 나가면 동생 좀 잘 챙겨라.

어휘와 표현 SO'ZVA IBORALAR

쓸데없다- foydasiz.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너는 내일 모레 시험인데 왜 그렇게 쓸데없이 돌아다니니? 공부하지 않고.

연습 MASHQ

1. *Matnni yaxshilab o'qib javob bering.*

- 1) 지언이와 민수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 2) 민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 3) 2020 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 4) 미래 시간표에 의하면 달나라, 화성 여행은 각각 몇 년에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 5) 지언이는 왜 민수의 걱정이 쓸데없다고 했습니까?

2. *Quyidagi so'zlarni mos o'rinlarga joylashtiring.*

예쁘다 예뻐하다 슬프다 슬퍼하다 아프다 아파하다
덜다 더워하다 기쁘다 기뻐하다 재미있다 재미있어하다

1. 이 옷이..... 데 돈이 모자라서 못 사겠다.
언니는 아이들을 데 나는 아이들이..... 지 않다.
2. 지난 번에 봤던 영화는 참어요.
내가 웃기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별로..... 지 않아요.
3. 아이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선물을 받고 모두들습니다.
나는 유학 시험에 합격해서 참데 어머니는 나를 외국으로 보내야 하는 것 때문에 별로지 않으셨다.
4. 계단에서 넘어졌을때지는 않았지만 너무 창피해서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북한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늘 가슴..... 니다.

5. 날씨가 (으)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데요.
학생들이 너무서 선생님이 창문을 조금 여셨어요.

6. 너무지 마. 이미 떠난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사랑하던 고양이가 죽어서 너무지만 더 이상.....지
않겠어요. 나쁜 일은 빨리 잊을 수록 좋으니까.

3. *Namunaga qarab mashqni bajarib.*

소문에 의하면 그 친구가 곧 결혼할지도 모른대요.

⇒ 그럴 리가 없어요. 한 달 전에 여자 친구와 헤어졌잖아요.

1) 친구들 말, 이번 학기에는 시험을 안 보다

2) 한국 친구 말, 학생 식당이 없어지다.

3) 소문, 하숙비가 또 오르다.

4) 학자들 연구,

5) 학생들 말,

6).....,

4. *Quyidagi ishlarni bajarish uchun nimalarni tayyorlash kerakligini yozib do'stingiz bilan o'zaro suhbatlashing.*

1) 등산을 갈 때:

2) 수영하러 갈 때:

- 3) 외국 여행 갈 때:
- 4) 학교에 올 때:
- 5) :

5. *Quyidagilar haqida suhbatlashib ko'raylik.*

1)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변하게 될 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 봅시다.

	지금의 모습	10년 후의 모습
전화		
컴퓨터		
자동차		
에너지		

2) 과학의 발전으로 인류의 생활은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인류에게 주는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좋은 점	나쁜 점

추석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한가위’, ‘가위’, ‘중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추석은 여름처럼 덥지도 겨울처럼 춥지도 않아 일 년 중 가장 생활하기 좋고, 온갖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어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풍족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추석에는 흠어져 살던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차례를 지낸 다음,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성묘를 합니다. 그리고 정성껏 차린 음식을 나눠 먹고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를 나누며 회포를 풁니다.

추석 전날 저녁에는 밝은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가족들이 모여 송편을 만드는데, 송편을 예쁘게 만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며, 잘 못 만들면 못생긴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집간 사람은 예쁜 딸을 낳는 다는 이야기도 있어 아직 시집을 안 간 처녀들은 송편을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추석은 수확기이므로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송편은 햅쌀에다가 콩, 팥, 대추, 깨 등 다양한 곡물을 이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영양이 풍부합니다. 또한, 솔잎의 향이 배어 있어서 송편을 베어 물 때마다 입 안 가득 솔잎 향기가 퍼집니다.

이번 달에는 밝은 달을 쳐다보면서 송편을 만들어 보세요. 멋진 배우자, 딸을 기대하면서.

추석의 풍속 중에 ‘반보기’가 있습니다. 추석이 지난 다음 서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끼리 날짜와 장소를 미리 정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중간 지점에서 만났으므로 ‘반보기’라도 했습니다. 어머니와 시집간 딸이, 또는 안사돈끼리 제각기 음식과 토산물을 가지고 양편 집의 중간쯤 되는 시냇가나 고개의 적당한 곳에 모여 하루를 음식과 이야기로 즐겼습니다.



2 과 단군이 조선을 세웠어요

옛날 하늘 나라에 환인이라는 하늘의 임금님이 있었다. 환인에게는 환웅이라는 하늘의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환웅은 하늘 나라에서 살기 보다는 땅으로 내려가 살고 싶어했다. 환인은 아들에 뜻을 알고 아들에게 땅을 다스리도록 허락했다. 그리고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비, 구름, 바람과 부하 3,000 명을 데리고 가게 했다.

땅으로 내려온 환웅은 백두산에 마을을 만들고 백성을 모아 다스리기 시작했다.이 때 환웅이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호라이 한 마리와 곰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래서 환웅을 찾아가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환웅은 썩과 마늘을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들이 굴 속에서 이것만 먹고 백 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곰과 호랑이는 썩과 마늘을 가지고 캄캄한 굴 속으로 들어갔다. 호랑이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며칠 만에 굴에서 뛰쳐나왔으나 곰은 백 일 동안 참아 아름다운 여자가 되었다.

사람이 된 곰은 결혼을 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환웅은 잠시 사람으로 변해그 여자와 결혼을 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한국을 처음 세운 '단군'이다. 단군은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백두산 아래로 내려와서 그 곳에 나라를 세우고 '조선' 이라고 불렀다.

새 단어 Yangi so'zlar

단군 Tangun(ism)

조선 Choson

세우다 barpo qilmoq

임금-qirol

내려가다 pastga tushmoq

다스리다 hukmronlik qilmoq

허락하다 ruxsat bermoq

부하 xizmatchi

백성 oddiy xalq

모으다 yig'moq

호랑이 yo'lbars

곰 ayiq

소원 orzu,istak

간절히 chin dildan

썩 o't

굴 g'or

햇빛 quyosh nuri

캄캄하다 zimiston

배고픔 qorin ochishi

만에 keyin

뛰쳐나오다 yugurib chiqmoq

태어나다 tug'ilmoq

❖ 마중 kutib olish

슬픔 qayg'u

웃음 kulgu

없어지다 yo'q bo'lmoq

신화 afsona

인물 inson

문법 GRAMMATIKA

1. Ot-에게 F-도록 허락하다

Otga q'o'shib, biror kimga biror harakatni bajarishga ruhsat berish ma'nosini anglatadi. Ammo har doim ham “에게” qo'shimchasi qo'llanmaydi. “한테”, “께” shakllarini ham qo'llash mumkin.

어머니께서 나에게 그 사람과 결혼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일찍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2. F-아/어 달라고 부탁하다

Fe'lga qo'shib, biror kimdan qandaydir ishni qilib berishini iltimos qilish ma'nosida qo'llaniladi, va odatda “deb iltimos qilmoq”, “...ishni iltimos qilmoq” deb tarjima qilinadi.

친구가 나에게 기차역으로 마중 나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언니가 나에게 조카를 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Shuni alohida ta'kidlab o'tish joizki, ushbu fe'l shakli ot bilan ham qo'llaniladi. U holatda “~을/를 부탁하다” holatida qo'llanadi.

바쁠 때는 동생에게 청소를 부탁해요.

여행사 다니는 친구에게 비행기표 예약을 부탁했어요.

3. S/F-(으)ㄴ

Sifat (holat fe'li) va harakat fe'lidan ot yasashda qo'llaniladi. Agar fe'l undoshga tugasa, “~음”, unliga tugasa “口” qo'shilib ot yasaladi.

동생을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오랫동안 밤마다 잠을 잘 수 없었다.
어디에선가 그녀의 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4. Ot 만에

Otdan so'ng qo'llaniluvchi ushbu qo'shimcha “ma'lum bir vaqtdan keyin” ma'nosini anglatadi.

없어진 양복을 한 달 만에 다시 차렸어요.
헤어진 지 40년 만에 가족을 만났다.

5. S/F-(으)나

Ushbu qo'shimcha qo'shma gapda qo'llanilib, ikkinchi gap mazmuni, birinchi gap mazmuniga ikkinchi gap mazmuni zid bo'ladi. “-(으)나” ikkita gapni o'zaro bog'lab, gaplarning bir-biriga teskari ma'nosini ifodalaydi.

값은 좀 비싸나 좋은 물건입니다.
친구를 한 시간 동안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다.

연습 Mashq

1. Matnni e'tibor bilan o'qib javob bering.

- 1) 환인은 환웅에게 무엇을 허락했습니까?
- 2) 환웅은 무엇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갔습니까?
- 3) 호랑이와 곰은 환웅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 4) 꿈은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되었습니까?
- 5) 호랑이는 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까?
- 6) 단군은 누구이며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2. *Quyidagi so'zlarni ishlatgan holda savollarga javob bering.*

모으다	부탁하다	세우다	참다	허락하다
-----	------	-----	----	------

- 1) 가: 이 학교가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곳이지요?
나: 네,.....
- 2) 가: 준석 씨는 취미가 뭐예요?
나:
- 3) 가: 밖이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
나:
- 4) 가: 월급 받으려면 아직 일 주일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하지요?
나:
- 5) 가: 이번 방학에 우리하고 같이 여행 가지 않을래요?
나:

3. *Qavs ichidagi grammatik shakllarni qo'llagan holatda javob bering.*

- 1) 가:씨가 여행 가는 것을 부모님이 허락하셨어요?
(Fe'l-도록 허락하다).
나:
- 2) 가: 친구에게 숙제를 부탁한 적이 있어요?(Fe'l – 아/어 달라고
부탁하다)
나:

3) 가:씨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Ot – 이/가 소원이다).

나:

4) 가: 미영씨가 지난 토요일에 결혼했지요? (Ot – 만에).

나:

5)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무엇이 제일 힘들었어요? (Ot – 을/를
참다).

나:

4. Do 'stlaringizga o'z yurtingiz haqida gapirib bering.

1) 나라를 세운 것에 관한 이야기

2) 역사적인 사건 중 한가지

	나라를 세운 이야기	역사적인 사건
나오는 인물		
때		
장소		
사건		

한국 속담의 과학성

어느 나라에나 자연현상을 소재로 한 속설이나 속담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속설이 입에서 입으로 오랫동안 전해져 오는 걸 보면, 꽤 잘 들어맞았던 모양이다. 현대의 과학자들은 속설이나 속담의 과학성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할까?

날씨와 관련된 속설부터 이야기래 보자. 예로부터 ‘가루눈이 오면 춥고, 함박눈이 오면 포근하다’고 하는데 이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말이다.가루눈은 한랭한 공기에서 만들어지므로 눈이 온 다음 더 추워지는 반면, 함박눈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기에서 만들어지므로 눈이 온 후에 포근해진다. 또한 함박눈이 내리는 밤에는 대기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거세게 부는 일이 없어서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

다음 한국인이라면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이 있다. 아이가 앙앙 울며 배가 아프다고 하면 어머니가 아이의 배를 쓰다듬으며 하는 말, ‘엄마 손은 약손’이 그것이다. 간혹 어머니의 치료를 받아 아이의 배가 씻은 듯이 낫는 경우도 있다. 좋은 상비약이 많은 요즘도 ‘엄마 손은 약손’의 처방은 여전히 효과가 있는 듯하다. 이런 엄마 손의 치료 효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근거가 있다.

우선 약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 또 엄마가 손으로 배를 따뜻하게 해 주어 배가 안정될 수도 있다. 배가 차가운

상태에서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므로 배에 온기를 전해 부면 배앓이가 치료되기도 하는 것이다. 배를 쓰다듬어 주면 내장이 자극되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배앓이가 사라진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위와 장이 약한 사람에게 배 부위를 둥글게 마사지하는 운동을 권하기도 한다.

한국의 속담이나 속설이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아마도 오랜 세월동안 살면서 터득하게 된 지혜이기 때문일 것이다.

3 과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거예요

다나카: 마이클 씨, 텔레비전 좀 켜 봐요. 뉴스 시작할 시간인데.....

마이클: 저도 뉴스를 보려던 참이었어요.

다나카: 그런데 텔레비전 뉴스는 말이 너무 빨라서 알아듣기

어렵지요?

마이클: 그렇다고 그것마저 안 들으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거예요.

다나카: 지금 저 아나운서가 뭐라고 그래요?

마이클: 내년에도 세계 정치와 경제가 불안할 거래요.

다나카: 지금 이 순간에도 각국에는 끊임없이 전쟁과 사건이 일어나고

있겠지요?

마이클: 그럴 거예요. 요새는 끔찍한 사건이 하도 많이 일어나서 뉴스

무서울 정도예요.

다나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비관적일 수도 있지만 낙관적일 수도 있어요. 살인, 유괴 같은

좋지 않은 뉴스도 많지만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으니까요.

새 단어 Yangi so'zlar

우물 quduq	*성별 jins
개구리 qurbaqa	특징 o'ziga xos
마저 xatto	뒹다 bog'lamoq
아나운서 boshlovchi	충돌 to'qnashuv
불안하다 havotirlanmoq	사망 o'lim
순간 bir soniya	경기도 Kyongido (shaxar)
각국 har bir davlat	갯벌 sohil
끝임없이 to'xtovsiz	감소 qisqarish
깜찍하다 hayratli,daxshatli	증시 qimmatbaho qog'ozlar
비관적 pessimistik	bozori
낙관적 optimistik	폭락 birbaniga narxning tushishi
살인 qotillik	
유괴 bola o'g'irlash	

문법 GRAMMATIKA

1. F-(으)려던 참이다

Ushbu qo'shimcha harakat fe'liga qo'shilib, so'zlovchi biror bir harakatni endigina qilmoqchi bo'lganligi haqida xabar beradi.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전화를 하려던 참이었어.

나가려던 참인데 마침 친구가 왔어요.

2. Ot 마저

Otga qo'shilib, hatto, hattoki ma'nolarini bildiradi.

월급을 다 쓰고 예금해 놓은 것마저 다 써 버렸으니 큰일이군요.
오늘 떠나는 마지막 비행기마저 놓쳤으니 어찌지요?

3. S/F-(으)르 정도이다

Harakat va sifat fe'llariga qo'shilib, biror bir harakatni qanday darajadiligini bildiradi.

너무 웃어서 배가 앞을 정도예요.
아나운서의 말은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빨라요.

어휘와 표현 So'z va iboralar

1. 우물 안의 개구리- Quduq ichidagi qurbaqaga o'xshab, faqatgina o'zining atrofidagi voqealardan xabardor bo'lib, dunyoda sodir bo'layotgan hodisalardan bexabar bo'lgan insonlar uchun ishlatiladi.

세계 각국 사람들을 만나 보니 내가 그동안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산 것 같아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요.

2. 생각하기에 따라(서)

Biror bir insonning biror bir narsa yoki vaziyat haqida nima deb o'ylashiga yoki tushunishiga bo'g'liqligini bildiradi.

그 문제는 생각하기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돈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연습 Mashq

1. Matnni e'tibor bilan o'qib, javob bering:

- 1) 두 사람은 무엇을 보려고 합니까?
- 2) 뉴스를 안 들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합니까?
- 3) 아나운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 4) 마이클은 왜 뉴스 보기가 무섭다고 합니까?
- 5) 다나카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싶어합니까?

2. Namunaga qarab mashqni bajaring:

도서관에 갈까요?

➤ 그렇지 않아도 나도 도서관에 가려던 참이었어요.

1. 냉면을 시킬 까요?

➤

2. 지금 바쁘세요? 같이 커피나 한 잔 합시다.

➤

3. 더우니까 문을 엽시다.

➤

4. 재미있는 연극이라던데 한 번 가 볼까요?

➤

5. 아버지, 컴퓨터를 좀 더 좋은 걸로 바꿔 주세요.

➤

6.



한국의 설화

선녀와 나무꾼

옛날 금강산 깊은 골에 한 나무꾼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무를 하자니까 노루 한 마리가 헐떡거리며 달려오더니 자기를 숨겨 달라고 했어. 다름 아니라 사냥꾼들한테 쫓기는 노루였어.

나무꾼은 노루를 나뭇단 속에 숨겨 주고 뒤쫓아 온 사냥꾼들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지. 목숨을 건진 노루가 예쁜 아내를 얻는 방법을 알려 주었지.

“어디 어디로 가면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는 곳이 있으니 가만 숨었다가 선녀들이 벗어놓은 날개옷 한 벌을 감춰 두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오. 그런데 선녀와 결혼하게 되더라도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는 날개옷 감춘 데를 일러 주면 안 되오”

나무꾼은 노총각으로 혼자 사는 것에 지칠 대로 지친 마당에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단다. 그래서 노루가 시킨 대로 날개옷 하나를 숨겼지. 한 선녀만이 옷이 없어서 올라가지 못 하고 울고 있었어. 나무꾼은 다가가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혼인하자고 했지. 선녀는 할 수 없이 나무꾼과 살면서 아이를 둘 낳았어.

나중에 선녀가 남편에게 날개옷이 어디 있냐고 틈만 나면 묻고, 하루는 하도 졸라대는 통에 노루가 일러 준 말을 깜빡 잊어버리고, 아이 둘을 낳았으니 이제 와서 무슨 일이 있으랴 싶어서 날개옷 있는 데를 일러 주었다. 그러자 아내는 아이를 양 옆구리에 끼고 천장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고 말았지.

나무꾼이 너무도 허망하여 울고 있으니 노루가 다시 나타났어.

노루는 두레박을 타고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을 알려 주었지. 두레박을 타고 하늘에 올라간 나무꾼은 아내와 자식들을 만나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4 과 비 올 확률이 높지 않아요

미치코: 준석 씨,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준석 : 아침에 일찍 나오느라고 신문을 못 봤어요.

미치코: 요즘 뉴스라고는 골치 아픈 것뿐이라서 저는 신문을 볼 때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공연 안내가 실린 면만 봐요.

준석 : 그렇지 않아도 저도 볼 만한 공연이 없는지 알아보려던 참이었는데... . 미치코 씨, 이 야외 공연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미치코: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나오네요. 재미있겠는데요.

준석 : 그럼, 오늘 오후에 같이 갈까요? 저는 아무 약속도 없는데..... .

미치코: 그런데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비가 오면 야외 공연은
취소될지도 몰라요.

준석 : 잠깐만요. 아, 여기 일기 예보가 있네요. 남부 지방에는 오후에
비가 오는데 서울·경기 지역은 구름만 많이 낀대요. 비 올
확률이 높지 않아서 괜찮겠는데요.

미치코: 그럼 공연장 매표소 앞에서 조금 일찍 만나요. 관객이 많아서
늦게 가면 뒤에서 봐야 할지도 몰라요.

준석 : 공연이 6 시에 시작하니까 4 시에 매표소 앞에서 만날까요?

미치코: 좋아요.

새 단어 Yangi so'zlar

확률 ehtimol

지역 rayon

곧치(가) 아프다 joniga tegishi

끼다 bulut qoplamoq

프로그램 dastur

매표소 kassa

실리다 chop etilmoq

관객 tomoshabin

면 taraf, tomon

* 사장 direktor

야외 tashqi

가구 mebel

최소하다 bekor qilmoq

먼지 chang

남부 janubiy hudud

약하다 nimjon

지방 viloyat

꾸다 qarzga olmoq

베란다 veranda	채 ta (uy)
팀 guruh	늘어나다 o'smoq, ko'tarilmoq
시합 musobaqa	실패하다 muvaffaqiyatsizlikka
생명 hayot	uchramoq
이메일 elektron pochta	내 ichida
과장 bo'lim boshlig'i	대전 jahon urushi
사업 biznes	해결하다 hal qilmoq
당연하다 aniq	

문법 GRAMMATIKA

1. S/F-(으)ㄹ 확률이 높다 (낮다, 있다, 없다)

Harakat va sifat fe'liga qo'shilib, biror bir harakatni bo'lish ehtimoli qanday darajada ekanligini bildiradi.

낮에는 집에 아무도 없을 확률이 높아요.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암에 걸린 확률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2. Ot (이)라고는 Ot 뿐이다

Biror turdagi predmetlardan faqatgina bittasi borligini bildiradi.

내 방에 가구라고는 책상뿐이다.

한국 노래라고는 '아리랑'밖에 못해요.

어휘와 표현 So'z va iboralar

1. 골치(가) 아프다

Biror bir harakatning davomiy takrorlanishi natijasida asabilashishni, joniga tegishini bildiradi.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골치가 아파요.

저는 요즘 취직 문제로 골치가 아픕니다.

2. 구름 (안개, 먼지) 이/가 끼다

Bulut (tuman, chang) bilan qoplanmoq

안개가 많이 낀 날은 특히 운전할 때 조심해야 해요.

어제는 맑더니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었네요.

연습 Mashq

1. Matnni e'tibor bilan o'qib, javob bering.

- 1) 미치코 씨는 신문에서 주로 어떤 면을 봅니까?
- 2) 두 사람은 오늘 오후에 무엇을 보러 가려고 합니까?

- 3) 오늘 오후의 서울·경기 지역의 날씨는 어떻다고 합니까?
- 4) 미치코 씨가 왜 일찍 만나자고 했습니까?
- 5) 두 사람은 어디서 만나기로 했습니까?

2. *Namunaga qarab, mashqni bajaring.*

가족이 몇 명이세요? (뿐이다)

➤ 가족이라고는 어머니 한 분뿐이에요.

1) 방에 어떤 가구가 있어요? (ot 밖에 없다)

➤

2) 한국 친구가 많아요? (뿐이다)

➤

3) 친구 결혼식이 있는데 양복 좀 빌려 주세요. (ot 밖에 없다)

➤

4) 운동 잘해요? (ot 밖에 못 fe'l)

➤

5) 한국 노래를 잘해요? (ot 밖에 못 fe'l)

➤

6)?

3. Bo'sh kataklarga mos keladigan so'zlarni to'g'rilab yozing.

끼다	나오다	떨어지다	타다	풀다
----	-----	------	----	----

1) 그 상황에 배우 이름이 뭐예요?

안내 방송이 데 소리가 작아서 안 들려요.

딸기는 늦은 봄에..... (으)니까 겨울에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2) 생선을 너무 센 불에 구우면(으)니까 약한 불에 구우세요.

월급을(으)면 부모님께 선물을 사 드리고 싶어요.

이번 추석 때는 버스를 안..... 고 기차를야겠어요.

3) 생활비가 다 서 할 수 없이 친구한테 조금 꾸었어요.

시험에학생들은 취직을 하거나 다음 해에 다시 시험을 칠 거예요.

아이가 5 층 짜리 아파트 베란다에서..... 는데 나무에 걸려서 살았대요.

4) 구름이 많이걸 보니 비가 올 모양이에요.

옷이 너무 작아져서 좀는데 고쳐야겠어요.

네가 우리 팀에(으)면 이번 시합에서 틀림없이 이길 거야.

5)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도 못.....요.

네가 자꾸 화를 내니까 내가 더 미안하잖아. 그만 화.....

머리를 묶는 것보다 길게(으)니까 더 멋있는데요.

4. *Do'stingiz bilan suhbatlashing.*

- 1) 지금 가장 골치 아픈 일이 뭐예요?
- 2) 학교에 다닐 때 어떤 과목이 제일 골치 아팠어요?
- 3)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데 무엇이 제일 골치 아파요?
- 4) 지금 여러분 나라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무엇입니까?
- 5).....?

6. *Quyidagi hodisalar sodir bo'lishi ehtimoli qay darajada ekanini, sababi nima ekanini do'stingiz bilan suhbarlashing.*

	없다	적다 (낮다)	많다 (높다)	100%	이유
오늘 비 올 확률					
방학 때 고향에 갈 확률					
올해 안에 대학, 대학원에 갈 확률					
2010 년 내에 한국이 통일될 확률					
3 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확률					

내년에 서울의 집 값이 내려갈 확률					
몇 년 내에 서울의 교통 문제가 해결될 확률					

속담과 관용어

속담 속의 떡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다. 배속이 든든해야 어떤 일이든지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한국인에게는 물론 밥이 제일가는 음식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음식은 바로 떡이다.

떡은 매일 먹는 밥과는 달리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먹는다. 떡은 맛도 좋지만, 예전에는 농사가 잘 되었을 때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풍요를 상징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떡에 관련된 속담이 많은 것은 이렇게 떡이 한국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예쁘게 장식된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인다는 뜻으로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는 속담이 있고, 아직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큰 기대를 갖는 사람에게 쓰는 말로 ‘떡 졸 사람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가 있다.

또 우연히 얻은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경우에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속담을 쓴다. 예를 들어 좋은 술을 선물 받았을 때, 이것을 기회로 오랫동안 못 만난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에 쓸 수 있다.

결으로만 좋아하는 척한다는 의미의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도 있다. 이밖에 ‘그림의 떡’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실제로 가질 수 없는 것을 가리킬 때 쓴다. 또 제삼자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깊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긋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라는 속담을 쓰기도 하고, ‘누워서 떡 먹기’는 아주 쉬운 일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런가 하면 저 하고 싶은 대로 다룬다는 뜻으로 ‘떡 주무르듯 하다’라는 말도 있으며, 뜻밖의 이득을 얻었을 때는 ‘떡이 생기다’라고 하기도 한다.

5 과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의 생활 수준이 점점 나아지면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다.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을 돈으로 계산해 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 전철을 놓고도 남을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을 만큼만 만들고 밥이나 반찬이 많을 때는 미리 덜어 놓은 습관을 가지는 게 좋다. 그렇게 하면 쓰레기 처리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영숙 어머니 :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꽤 힘든 일이지요?

이웃집 아주머니 : 그래요. 더군다나 종류별로 모아서 버려야 하니까 귀찮을 때가 많아요.

영숙 어머니 : 그래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주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지요.

이웃집 아주머니 : 영숙이 어머니는 항상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영숙 어머니 : 환경 문제는 우리의 생명과 직접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모두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웃집 아주머니 :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 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쓰레기양이 훨씬 많다고 하던데요.

영숙 어머니 : 그렇대요. 그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특히 문제라고 해요.

이웃집 아주머니 : 우리도 음식을 만들 때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만들어야겠어요. 음식을 남겨서 버리는 일처럼
 아까운 것도 없잖아요.

새 단어 Yangi so'zlar

환경 atrof- muhit	실천하다 amalga tadbiiq etish
수준 daraja	관계되다 bog'lanmoq
점점 oz- ozdan, borgan sari	선진국 rivojlangan davlatlar
각 har	양 miqdor
쓰레기 ahlat	* 문화 madaniyat
음식물 oziq-ovqat	기호 dld
놓다 (길을) (yo'l) solmoq	실증(이) 나다 jonga tegmoq
줄이다 kamaytirmoq	수거하다 to'plamoq
- (으)르 만큼 xuddi, kabi	차이 farq
반찬 gazak	심각하다 jiddiy
더군다나 dan tashqari	경제적 iqtisodiy
종류 tur, xil	분리 수거 turlarga bo'lib
귀찮다 bezor qilmoq	to'plamoq
주부 uy bekasi	

문법 GRAMMATIKA

1. Ot 에 / 에게 관심이 있다 / 없다

Otga qo'shilib, biror narsaga qiziqishi bor yoki yo'qligini bildiradi.

저는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전통 문화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Ot 에 / 에게 관심을 가지다

Otga qo'shilib, biror qiziqishga ega ekanligini bildiradi.

우리 모두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류의 미래에 모두가 관심을 가진다면 과학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2. F-고도 남다

Harakat fe'liga qo'shilib, biror bir harakat bajarilsa ham oxirigacha tugallanmaganligini bildiradi.

케이크가 너무 커서 10 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일 주일이면 준비를 끝내고도 남을 시간이잖아요.

3. Fe'l (으)ㄴ 만큼

Fe'lga qo'shilib, biror bir harakatni qila olish darajasini bildiradi. "...dek qila olish, qila olmaslik" deb tarjima qilinadi.

한국말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한국말을 잘하고 싶어요.

기호에 따라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서 먹을 만큼만 가져가세요.

4. Ot 별(로)

Otga qo'shilib, predmetlarni turlarga ajratishda ishlatiladi.

나이별로 앉아 보세요.

* 학년별, 학교별, 남녀별, 성별, 종류별

5. Fe'l 지 않으면 안 되다

Holat fe'li va harakat fe'llariga qo'shilib, biror bir harakatni bajarmasa mumkin emaslihi ma'nosini anglatadi.

그 일을 내일까지 끝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차표를 예매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6. Ot 처럼 fe'l (으)ㄴ/ 는 ot 도 없다

이 세상에서 사랑처럼 아름다운 것도 없을 거예요.

매 친구처럼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연습 Mashqlar

1. *Matnni o'qib, savollarga javob bering.*

- 1) 생활 쓰레기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 2) 한 해 버리는 음식물을 돈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라고 합니까?
- 3)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가지)
- 4) 쓰레기 버리는 일이 왜 힘들니까?
- 5) 영숙이 어머니는 우리가 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까?

2. *Namumunadan mos kelgan so'zni tanlab, yozing.*

귀찮다	기호	덜다	선진국	수준	실천하다	실증
		심각하다	종류	차이	처리	환경

- 1) 에 따라 드시라고 커피에 설탕을 안 넣어 왔습니다.
- 2) 어젯 밤에는 웬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던지 너무나어요.

- 3)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를(이) 라고 합니다.
- 4) 가는 곳마다 그 음악을 들려 줘서 이제는 그 음악에이/가
났어요.
- 5) 물건뿐만 아니라 시간도.....서 쓸 줄 알아야 해요.
- 6) 가: 제게는 밥이너무 많군요.
나: 그럼, 이 그릇에 서 드세요.
- 7) 계획한 대로 기 어려운 때가 많아요.
- 8) 문화의..... 때문에 처음에는 이 곳 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3. Quyidagi grammatik konstruksiyalardan foydalanib javob bering.

더군다나 에 관심이 있다 V -(으)르 만큼 V - 고도 남다 N-처럼
A/V- (으) N/는 N 도 없다 A/V- 지 않으면 안 되다

- 1) 가: 오늘 여행사에 전화해서 비행기표를 예약해 놓으세요.
나: 떠나려면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요.
가:
- 2) 가: 한국 역사에 대해 잘 아시는군요.
나:

가: 어제 손님을 초대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음식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나:

3) 가: 준석 씨는 마음이 참 넓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나:

4) 가: 왜 그 책을 아직도 안 읽었어요?

나:

5) 가: 이 케이크 아주 맛있는데 좀 들어 보세요.

나:

5. Do 'stingizdan so'rab ko'ring.

** 친구들에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물어 보세요.*

1) 내가 쓰는 물건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물건은 무엇입니까?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2) 내가 버리는 쓰레기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것을 줄이거나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여러분 나라의 쓰레기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것을 처리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3) 여러분 나라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큰 문제입니까?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 친구들의 대답을 듣고 다음을 완성해 보세요.*

- 우리 반 학생들이 쓰고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물건은 씨의 (이) 며 사용한 지 년이 되었다고 한다.
- 우리 반 학생들이 가장 많이 버리게 되는 쓰레기는 (이) 고 그 것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
- 각국의 쓰레기 문제 중 많은 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며 그 것을 처리하는 좋은 방법은 다.
-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가 되는 나라는(이)며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다.

**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을 처리해서 버려야 하는지 자세히 말해 보고 어디에 버리면 좋을 지 찾아 보세요.*

한국의 관혼상제

사람이 살면서 꼭 지켜야 할 예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혼상제이다.

관혼상제란 관례, 혼례, 장례, 제례를 말한다. 성인이 되고, 혼례를 올리고, 장례와 제례를 치르는 것은 사람의 일생과 관계가 깊다.

관례는 아이가 어른이 되는 의식이다. 이 때 남자는 상투를 올리고 여자는 비녀를 꽂는다. 요즘은 이런 절차를 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으로 이십 세가

되면 성인이 되는 것을 기념하여 성년의 날 행사를 갖는다. 가족들끼리 선물을 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한다.

혼례는 결혼식을 말하는데, 혼례의 형식을 서양식으로 하느냐 전통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예복과 절차가 달라진다. 주로 서양식으로 하지만 요즘은 전통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장례는 사람이 죽은 후에 치르는 의식이다. 삼일장, 오일장, 칠일장 등 장례 기간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데, 요즘은 보통 삼일장을 한다. 삼일이라는 기간은 죽은 사람이 저승에 갔다가 되돌아오는 시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제례는 돌아가신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고 조상을 섬기는 의식이다. 돌아가신 날과 한국의 큰 명절인 설과 추석에 제례를 행한다. 제례는 시대에 따라 형식이 변하기는 했지만, 그 근본 정신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6 과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입시다

지연: 요즘은 서울 시내 700 여 군데 주유소에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대요.

민수: 나도 기름 넣으러 가는 길에 그 동안 모아 두었던 신문지를
가져가 본 적이 있는데 참 편리하던데요.

지연: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모양이에요.

민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연: 그래요. 특히 나무젓가락이나 종이컵 같은 일회용품을 덜
써야겠지요.

민수: 이렇게 계속해서 쓰레기가 늘다가는 지구가 온통 쓰레기로
덮일지도 몰라요.

지연: 우리들 모두가 꼭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지요.

민수: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쓰레기 재활용하는 법도 연구해야
하고요.

새단어 Yangi so'zlar

일회용품 bir martalik buyum

군데 joy

주유소	benzin quyish	나서다	oldinga chiqmoq
	shaxobchasi	* 늘리다	ortirmoq
시민	aholi	휴식	dam olish
편의	qulaylik	줄다	kamaymoq
재활용품	qayta ishlatiladigan	체육 대회	sport musobaqasi
buyum		사고 방식	mintalitet
신문	gazeta	오염	ifloslanish
반응	ta'sir	원인	sabab
얼다	olmoq	대기	atmosfera
무엇보다도	hammasidan ko'ra,	배기	zaharli gazlar
	eng	비닐	sellofan
늘다	ortmoq	봉투	xalta
지구	yer (planeta)	화분	tuvak
온통	butunlay	깨끗이	tozalik
덮이다	qoplanmoq	꺾매다	tikmoq
의식	fikr	지도자	boshliq
한계	chegara, to'siq	알뜰하다	tejamoq
정부	hukumat		
적극적	faol		

문법 GRAMMATIKA

1. Ot 을/를 줄이다 (늘리다)

Otga qo'shib, biror bir narsani kamaytirish yoki ko'paytirishni bildiradi.

쓰레기를 줄입시다.

건강을 위해서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휴식 시간을 늘려야 한다.

Ot 이/가 줄다 (늘다)

Otga qo'shib, biror bir narsa kamayishi yoki ko'payishini bildiradi.

자동차가 늘어서 길이 복잡해요.

옷을 세탁기에 빨았더니 줄어서 못 입게 됐어요.

2. F-다가는

Harakat fe'liga qo'shib, biror bir harakat to'xtovsiz ravishda davom etishi va uning natijasini bildiradi.

이렇게 비가 오다가는 홍수가 날지도 몰라요.

텔레비전을 가까이서 보다가는 눈이 나빠질 거예요.

3.Ot 이/가 ot (으) 로 덮이다

Otga qo'shilib, biror bir narsani biror bir narsa bilan qoplanishini bildiradi.

산이 눈으로 덮여서 아름답다.

가을엔 거리가 낙엽으로 덮여요.

4. Ot 이/가 나서다

Otga qo'shilib, biror bir muammoni hal qilishda kimni yoki nimani oldinga chiqishini bildiradi.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 일은 형님이 나서야 잘 될 거예요.

어휘와 표현 So'z va iboralar

반응을 얻다 - biror bir harakat natijasida ta'sirlanishni bildiradi.

이 계획이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체육대회가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서 계속하기로 했어요.

2. 무엇 (누구, 어디) 보다도 - biror narsani boshqalaridan ustunligini bildiradi.

신발은 무엇보다도 발이 편해야 합니다.

제주도에 가게 되면 어디보다도 먼저 한라산에 올라가 볼 거예요.

연습 Mashq

1. Matnni o'qib javob bering.

- 1) 요즈음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 2) 그 일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3) 환경을 위해서 재활용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 4) 쓰레기가 계속 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5) 쓰레기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Quyidagi grammatik konstruktsiyalardan foydalanib, gap tuzing.

N 이/가 나서다	N 이/가 N(으)로 덮이다	V-다가는	반응을 얻다
N 이/가 줄다	N 을/를 줄이다	N 이/가 늘다	N 을/를 늘리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어디보다도	N 을/를 빼다

1) 가: 지난 번에 소개 받은 사람이 어땀어요?

나: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2) 가: 아니, 이 옷이 왜 이렇게 작아졌니?

나: 세탁기에 넣고 빨았더니.....

3) 가: 체육 대회 때 어떤 운동을 하면 학생들에게..... 요?

나: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좋아할 거예요.

4) 가: 3 집에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 저희 형님이..... 잘 해결됐어요.

5) 가: 침대가 옷 잤어요. 침대 위 좀 정리하세요.

나: 아까 급히 나가느라고 치우지 못했어요.

6) 가: 요즘 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살을 (으)려면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식사량을
하세요.

7) 가: 이렇게 차를 빨리 운전 사고 나겠어요.

나: 제가 마음이 너무 바빠서 그랬나 봐요. 좀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3. *Atrof-muhitning ifloslanishi jiddiy muammoga aylanmoqda. Atrof-muhitning ifloslanish sabablari haqida suhbatlashing.*

1) 대기 오염: 1. 자동차의 배기 가스

2.

3.

2) 물의 오염: 1.

2.

3.

3) 땅의 오염: 1.

2.

3.

4. Atrof-muhitni ifloslanishdan saqlashning qanday usullari bor? 'Yerni yashatish usuli' haqida suhbatlashing.

한국의 전통 무예

태권도는 2000 년 전부터 시작된 한국 고유의 전통 무술이다. 태권도는 고구려에서 시작되었으며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발전해 왔다.

태권도는 1896 년 제 10 회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1988 년 제 24 회 서울 올림픽에서는 시범 종목으로 선정되었고, 2000 년 제 27 회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태권도의 기술은 기본 동작, 품세, 겨루기, 격파, 호신술로 나눌 수 있다. 기본 동작은 손과 발을 이용한 기술로, 주먹과 손을 이용한 막기, 지르기, 찌르기, 치기와 발을 이용한 차기가 있다.

품세는 상대를 가상하여 혼자 훈련하는 것이다. 품세를 열심히 연습해야 비로소 겨루기를 할 수 있다. 겨루기는 품세를 통해 익힌 기술을 응용하여 실제로 상대와 대결하는 기술이다. 또한 격파는 손과 발 등으로 각종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 파괴력을 기르는 것이다.

호신술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태권도 기술을 종합하여 응용한 것으로, 실제로 상대가 접근했을 때 상대의 공격을 제압하고 역공격을 하는 기술을 말한다.

태권도의 도복은 위아래 모두 흰색이며, 수준에 따라 허리에 매는 띠의 색깔을 구분하고 있다. 무급은 흰색, 10~9 급은 노란색, 8~7 급은 초록색, 6~5 급은 파란색, 4~3 급은 자주색, 2~1 급은 빨간색, 유단자 이상은 검은색이다.

7 과 선 봤다는 소문을 들었어

준석: 지연아, 선을 봤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이니? 넌 연애

결혼하겠다고 하지 않았어?

지연: 누구한테 들었어?

준석: 민수한테 들었는데 조건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면서?

지연: 무슨 남자가 그렇게 입이 가벼울까? 비밀은 꼭 지키겠다고 하더니 벌써 다 말했구나.

준석: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한데, 말 좀 해 봐.

지연: 이모 친구의 동생인데, 좋은 대학을 나온 데다가 집안도 좋고 잘 생겼다고 하도 칭찬을 해서, 한 번 만나 보거나 하려고 나갔어요.

준석: 그래서 직접 만나 보니 어땠어?

지연: 글썄, 인상은 괜찮았지만 한 번 보고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 뭐. 난 조건보다는 인간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준석: 네 말이 맞아. 중요한 건 재산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지. 젊은 사람들이 만나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행복한 결혼 아니겠니?

지연: 맞아. 그렇지만 한 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 작은 돈으로 생활하다 보면 바가지를 굽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사랑도 점점 식지 않을까?

준석: 요즘 여자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다면 나 같이 가난한 사람한테 너처럼 멋있는 여자는 그림의 떡이겠다.

지연: 아이, 비행기 그만 태워. 네 여자 친구가 네가 졸업할 날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걸 모르는 줄 알아?

준석: 하여튼 네 말을 들으니 이제부터 여자 친구에게 더 잘 해
줘야겠다.

혹시 좋은 조건을 가진 남자가 나타나면 마음이 변할까 봐
걱정이 되네.

새 단어 Yangi so'zlar

이모 xola	자꾸 tez-tez, bir necha bor
집안 uy ichi	관용어 ibora
칭찬하다 maqtamoq	깨 kunjut
인상 taasurot	쏟아지다 sepmoq
인간성 odamiylik	미역국 dengiz o'tidan sho'rva
재산 mulk	역겹다 yoqimsiz, jirkanch
한편 bir tarafdan	고이 qanday bo'lsa shundayligicha
바가지 qovoq	아름 quchoq
긋다 tilmoq, qashlamoq	뿌리다 yog'moq, sochilmoq
식다 sovib qolmoq	사뿐히 yengil
빠지다 tushib ketmoq	흘리다 oqmoq
혹시 mabodo	이별 ajralish
*사투리 sheva	

문법 GRAMMATIKA

1.F-다면서(요)?

Harakat va sifat fe'llariga qo'shilib, biror bir narsaga ishonch hosil qilish uchun qayta so'rash ma'nosida qo'llaniladi.

바바라 씨는 한국에 처음 오셨다면서요?

설악산은 단풍이 아름다면서요.

2.Ot (이) 라면서(요)?

Otga bog'lanib, biror narsa haqida qayta so'rashda qo'llaniladi.

취미가 낚시라면서요? 주말에 함께 낚시 갑시다.

외국 여행이 처음이라면서요?

3.F-다고 하더니

Harakat va sifat fe'llariga qo'shilib, “shunday deyishayotgan bo'lsa ham, lekin” ma'nosida qo'llaniladi.

오늘 흐리겠다고 하더니 날씨가 아주 좋은데요!

남자 친구를 사귄다고 하더니 왜 헤어졌어요?

4. Fe'1 (으) L/ 는 데다가

Harakat va sifat fe'llariga qo'shilib, biror bir harakatga qo'shimcha ravishda yana bir harakatning qo'shilishini bildirib, shuningdek, bu ham yetmagandek degan ma'nolarni bildiradi.

많이 걸은 데다가 점심을 못 먹어서 말할 힘도 없어요.

그 꽃은 예쁜 데다가 오래 가서 좋아요.

5. 한번 Fe'1 아/ 어 보거나 하다

Harakat fe'liga qo'shilib, biror bir ishni bir marta bo'lsa ham qilib ko'rishni bildiradi.

아까 그 남자 어때요? 한번 만나보거나 하세요.

어디 가세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한번 찾아 보거나 해야겠어요.

6. Fe'1 다 보면

Harakat fe'liga qo'shilib, biror bir harakatni takroriy ravishda qilishni bildiradi.

Fe'1 다 보니(까) harakat fe'liga qo'shilib, biror bir harakatni takroriy ravishda qilishning natijasini anglatadi.

외국에 계속 살다 보면 생각이 달라질 텐데요.

한국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한국말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어휘와 표현 SO'Z VA IBORALAR

1. **바가지(를) 긁다** biror narsa haqida joniga tegish darajasida ko'p gapirishni bildiradi.

돈 문제 때문에 바가지 긁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다.

나는 우리 엄마가 바가지 긁는 걸 본 적이 없다.

2. **그림의 떡** amalga oshirish qiyin bo'lgan harakat va holatlarga nisbatan qo'llaniladi.

그 옷은 너무 비싸서 내겐 그림의 떡이에요.

이런 집은 그림의 떡이지만 구경이나 해 볼까요?

3. **비행기(를) 태우다** biror narsani oshirib gapirishni ifodalaydi “gapni olib qochmoq”.

비행기 태우지 말고 느낀 대로 말씀 해 주세요.

그 말 정말이에요? 비행기 태우는 거 아니지요?

4. **눈(이) 빠지도록 [게] 기다리다** biror bir narsani uzoq vaqt kutish ma'nosini bildiradi “ko'zi to'rt bo'lib kutmoq”.

눈 빠지게 기다려도 그 여자는 안 올 거예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눈 빠지게 기다렸잖아요.

연습 Mashqlar

1. *Matnni o'qib savollarga javob bering.*

- 1) 민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 2) 지연이는 왜 선을 봤습니까?
- 3) 지연이는 결혼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4) 준석이의 결혼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5) 준석이는 지연이의 말을 듣고 나서 무엇을 걱정하게 되었습니까?

2. *Namunaga qarab javob bering.*

가: 이 옷은 저한테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요.(입다)

나: 그래도 한번 입어 보거나 하세요.

1. 가: 저는 떡을 안 좋아해요. (먹다)

나:

2. 가: 벌써 차가 출발했을 텐데. (나가다)

나:

3. 가: 그 사람 아주 바쁠 거예요. (시간 있냐고 묻다)

나:

4. 가: 열도 안 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병원에 가다)

나:

5. 가:

나:

운동을 매일 하다 → 운동을 매일 하다 보면 건강해질 거예요.

→ 운동을 매일 하다 보니 이전 운동을 안 하면
이상해요.

1. 한국에서 오래 살다 →

→

2. 그 사람을 자주 만나다 →

→

3. 매일 술을 마시다 →

→

4. 피아노를 매일 한 시간씩 치다 →

→

5. 노래를 자꾸 부르다 →

→

3. Namunadagi grammatik konstruksiyalardan mosini tanlab gaplarni bog'lang.

유진: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난

2) 지민: 와, 저 집 참 크고 멋있다. 수영장도 있는 데다가

테니스장도 있네. 내가 저런 집을 사게 되면 네게 방 하나 줄게.

준구: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저 집은 우리 같은 학생에겐

3) 미치코: 다나카 씨 여자 친구는 정말 좋겠어요. 다나카 씨처럼 성격

좋고, 멋있고, 재미있는 사람을 사귀니까요.

다나카: 어, 오늘 왜 이래요? 아무리 그래도 난 지금

커피 살 돈도 없어요.

4) 영민: 승호 씨, 이번에 아들 낳았다면서요? 축하해요. 한턱 내야겠네요.

승호 : 고마워요. 그런데 한턱은 다음에 낼게요. 이번 달에는 돈을 벌써

다 써 버려서 월급 받는 날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5) 준구: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어?

영민: 글썸, 아침에 나오는데 아내가 게다가 버스를

놓쳐서 지각을 했어.

5. Quyida hayotda ko'p ishlatiladigan iboralar berilgan. Ma'nosini topib ko'ing.

- 1) 국수를 먹다
- 2) 깨가 쏟아지다
- 3) 바가지(를) 쓰다
- 4) 주머니가 가볍다
- 5) 미역국을 먹다

6. *Quyida Kim So Volning '진달래꽃' nomli she'ri berilgan. O'qib, tarjima qiling.*

진달래꽃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1) 이 사람은 이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2)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일 거라고 생각됩니까?
- 3)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람의 생각과는 어떻게릅니까?
- 4) 여러분 나라에 사랑에 대한 시가 있다면 한국말로 바꿔서
- 5)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그리고 그 시에서 알 수 있는 생각을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8 과 한국말을 잘한다면서 칭찬해요

준석 : 바바라 씨,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지요?

바바라: 벌써 일 년이 다 되었네요. 더듬거리면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수지 : 맞아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준석 :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 첫인상이 어땠어요?

바바라 : 우선 많은 아파트촌과 자동차로 가득한 도로를 보고 놀랐어요.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요.

수지 : 저는 서울에 아직도 남아 있는 아름다운 한옥이 참 인상 깊었어요.

바바라 : 그래요. 서울은 옛날 집과 현대식 건물이 잘 어울려 있는 도시인것 같아요.

준석 : 그 동안 한국 사람들로 부터 질문도 많이 받았지요?

수지 : 내가 한국어로 말하면 한국말을 어디에서 배웠냐면서 궁금해 해요.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는 것이 신기한 모양이에요.

바바라 : 저는 ‘왜 한국말을 공부하세요?’ 나 ‘왜 한국에 오셨어요?’

같은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수지 : 또 몇 살이냐든지 결혼은 했느냐든지 하는 질문을 받을 때도
있는데 그런 때는 정말 당황하게 돼요.

준석 :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지요. 그렇지만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관심의 표현이니까요.

바바라: 그렇군요.

새단어 Yangi so'zlar

더듬거리다	tutilib qolmoq	qoymoq
엇그제	bir necha kun avval	*유창하다 ravon so'zlamog
세월	vaqt	다행이다 baxtli, omadli
아파트촌	ko'p qavatli uylar	쏟아갈다 o'q kabi (tez)
가득하다	liq to'la	정신 ruh, ko'ngil
상상하다	tasavvur qilmoq	목적 maqsad
한옥	koreys milliy uslubda qurilgan uy	시설 asbob-uskuna
현대식	zamonaviy	작문 insho
당황하다	o'zini yo'qotib	기대하다 kutmoq
		조사하다 tadqiqot olib bormoq

문법 GRAMMATIKA

1. F-다/자/냐/라면서

O'zlashtirma gapning bir turi bo'lib, sifat va harakat fe'liga qo'shilib, ikki harakatning bir vaqtda bajarilganligini bildiradi.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한다면서 칭찬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마이클 씨가 같이 공원에 가자면서 전화했어요.

내 동생은 누가 자기 옷을 입고 나갔냐고 화를 냈어요.

아무도 안 다쳐서 다행이라면서 기뻐했어요.

2. Fe'l (으)ㄴ 것이 엇그제 같다

Harakat fe'luga qo'shilib, biror bir harakatni sodir bo'lganligiga uzoq vaqt bo'lgan bo'lsa ham, yaqinda sodir bo'lgandek tuyulganda ishlatiladi.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10 년이 지났네요.

이번 학기가 시작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3. Ot (으)로 가득하다

Otga qo'shilib, biror narsani biror narsa bilan to'liqligini bildiradi.

부엌이 음식으로 가득한 걸 보니 손님이 오시는 모양이군요.

지갑이 동전으로 가득해서 무거워요.

4. Fe'l 냐든지 fe'l 냐든지

Harakat va sifat fe'luga qo'shilib, biror bir narsa haqida bilishni xohlagada savollarni tinmay berganda ishlatiladi.

어머니는 제 여자 친구가 나이가 몇 살이냐든지 얼굴은 예쁘냐든지 하는 질문을 하면서 귀찮게 했어요.

F-았/었냐든지 fe'l 았/었냐든지

방학동안 여행을 갔었다고 했더니 재미있었냐든지 날씨는 좋았냐든지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어휘와 표현 So'z va iboralar

세월이 (쏟살같이) 빠르다 [지나가다] - vaqtni o'q kabi tez o'tib borayotganini ifodalayotganda ishlatiladi.

계절이 바뀌는 걸 보니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세월이 쏟아져 지나갔어요.

연습 Mashqlar

1. Matnni o'qib, javob bering.

1) 바바라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2) 바바라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왜 놀랐습니까?

3) 수지는 서울에서 무엇이 인상적이었습니까?

4) 수지와 바바라는 한국 사람들로 부터 어떤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까?

5) 준석이의 말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왜 외국인에게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까?

2. *Gaplarni bog'lang.*

*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 에 넣으세요.*

도로 세월 옛그제 칭찬 한옥 현대식

- 1) 서울에는 아직도 옛날이/가 남아 있습니다.
- 2) 대학교를 졸업한 것이 같은데 벌써 10 년이 지났어요.
- 3) 요즘은 전보다 이/가 더 빨리 간다고 느껴져요.
- 4) 어제는 작문 숙제를 잘 했다고 선생님께 을/를 받았어요.
- 5) 어디든지 큰 도시에는 건물이 많은 것 같아.
- 6) 출퇴근 시간에는 자동차들이 많아서..... 이/가 주차장 같다.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 에 맞게 쓰세요.*

가득하다 다행이다 당황하다 더듬거리다 상상하다 어울리다

- 1)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면서 한국말을 했어요.
- 2) 그 옷에는 빨간 구두가 (으) 르 것 같아요.
- 3)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많이 안 다쳐서 정말 요.
- 4) 그 사람을 만나 보니 았/었던 것보다 훨씬 예쁘더군요.
- 5) 갑자기 기대하지 않은 질문을 해서 너무
- 6) 도로가 자동차와 사람들로

3. Quyidagi suhbatni bir-iriga bog'lang.

1) 가: 내년 봄에 졸업하지요?

나: 그래요..... 이/가 엇그제 같은데.

2) 가: 어떤 질문이 대답하기 어려운가요?

나:..... 냐든지 냐든지 하는 질문이 어려워요.

3) 가: 그 사람 오늘 무슨 일이 있나요?

나: 글썬요. 다/ 라면서

4) 가: 어떤 때 당황하게 돼요?

나:.....(으)르 때가 있는데 그런 때는 게 돼요.

관용어

1. **가닥을 잡다** : 분위기를 파악하거나 상황을 이해하다.-실마리를 잡다

가닥-한곳에서 갈려 나간 낱알의 줄

예 : 회사에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가닥을 못 잡고 있다.

2. **가랑이가 찢어지다** : 남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다 자신의 처지가 나빠지다.

예 : 과소비 풍조에 없는 사람만 가랑이가 찢어지지.

3. **가려운 곳을 긁어 주다 -가려운 데를 긁어 주다** : 꼭 필요한 것을 알아서, 욕구를 만족시키다.

예 : 우리는 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4. **가만 있자.** : 생각이 얼른 떠오르지 않을 때 쓰는 말

예 : 가만 있자.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수요일인가?

5. **가슴에 간직하다** : 마음속에 잊지 않고 기억하다.

예 : 추억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다.

9 과 친한 친구도 가족처럼 생각해요

수지와 바바라는 길지 않은 한국 생활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이 흥미롭고 즐겁다. 그들은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 여러 가지 괴로웠던 일과 즐거웠던 일들이 고향에 돌아가서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어제도 수지와 바바라는 재미있는 경험을 했다.

바바라: 어제는 수지와 함께 하숙방을 구하러 돌아다녔어요.

수지 : 부동산에 가서 아저씨한테 독방을 두 개 구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왜 친구인데 한 방을 쓰지 않느냐면서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준석 : 하하. 한국 사람들은 친한 친구도 가족처럼 생각하니까 방도 같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바라 :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관습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수지 :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주말에 혼자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바바라: 또 한구 사람들은 정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만 친해지면 아주 가까운
사람처럼 대해 줘요.

수지 : 맞아요. 지난번에 제가 아팠을 때 하숙집 아주머니께서 친어머니처럼
저를 보살펴 주시더군요. 저는 그 때 고향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아주머니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꼈어요.

바바라: 그렇게 가깝게 대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어떤 때는 정말 부담이 돼요.

새 단어 - Yangi so'zla:

흥미롭다 qiziqarli

사생활 shaxsiy hayot

추억 hotira

여기다 o'ylamoq, hisoblamoq

돌아다니다 aylanib yurmoq

관습 odat

독방 bir kishilik xona

자라다 o'smoq, ulg'aymoq

개인 shaxs

자신 o'ziga ishonch

자유 erkinlik

갖다 ega bo'lmoq

대하다 yuzmza-yuz o'tirmoq

고통 og'riq

친어머니 haqiqiy ona

판단하다 qaror qilmoq

보살피다 g'amxo'rlik qilmoq

옳다 to'g'ri, hatosiz

부담 mas'uliyat

예절 hulq atvor

*정의롭다 adolatli

문법 GRAMMATIKA

1. Ot-롭다

Otdan sifatning yasalishi.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되고 싶어요.

2. Ot 을/를 S-게 여기다

Ot va sifat fe'li bilan bog'lanib, biror bir narsani qanday deb o'ylash ma'nosida qo'llaniladi.

그 사람은 사생활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Ot 을/를 ot (으)로 여기다

Otga bog'lanib, biror bir narsani boshqa bir narsa deb o'ylash ma'nosida qo'llaniladi.

내 말을 농담으로 여기면 곤란해요.

3. F-는 관습 [습관, 사고방식]

Harakat fe'liga qo'shilib, biror bir harakatni qilish odati degan ma'noni beradi.

여자들만 집안일을 하는 관습은 고쳐야 해요.

4. F-기보다는

Harakat fe'liga qo'shilib, biror bir harakatni qilishdan ko'ra boshqa harakatni qilish oson, yaxshi ekanligini anglatadi.

Misol:

여동생은 청소하기보다는 요리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5. F-더군(요)

Harakat va sifat fe'llariga qo'shilib, biror bir narsa haqida o'z tajribasini bayon etishda qo'llaniladi.

지난 주말에 민석 씨 집에 갔는데 민석 씨 여동생이 정말 예쁘더군요.

어휘와 표현 So'z va iboralar

그랬더니 shunday degani uchun, shunday qilgani uchun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약을 주었어요.

* 결혼을 축하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영숙 씨가 기뻐했어요.

연습 Mashqlar:

1. Matnni diqqat bilan o'qib, savollarga javob bering.

1) 수지와 바바라는 어제 무엇을 했습니까?

2) 수지와 바바라는 어떤 방을 원합니까?

3) 한국 사람들은 주말에 어떻게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까?

4) 수지는 하숙집 아주머니가 잘 보살펴 주셨을 때 누구 생각이

났습니까?

5) 바바라는 너무 가깝게 대해 주면 기분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2. 1)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 에 넣으세요.

경험	독방	마음씨	사생활	인상	자유	추억
----	----	-----	-----	----	----	----

1) 개인의와/과 이/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 2) 저는 무엇보다도 이/가 착한 사람이 좋습니다.
- 3) 그 사람의 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 4) 아무리 많이 배워도이/가 없는 사람은 생각이 깊지 않은 것 같습니다.
- 5) 사람마다 어렸을 때의 아름다운이/가 있지요.
- 6)으/는 혼자 쓰니까 편하기는 하지만 비싸요.
- 2)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 에 맞게 고쳐 쓰세요.

대하다 보살피다 부담이 되다 여기다 흥미롭다

- 1) 제가 가장 중요하게 는 것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 2) 남대문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모습은 요.
- 3) 그 사람이 저에게 너무 친절하게 해 줄 때는 아주요.
- 4) 그분은 고향의 부모님처럼 저를 주시는 분입니다.
- 5) 그분은 언제나 저를 아이처럼서 그분 앞에서는 제가

아이가 된 것 같아요.

3. Quyidagi grammatik shakllarni qo'llab, javob bering.

그랬더니	Fe'l 기보다는 Fe'l 더군요
Ot 을/를 ot(으)로 여기다	Fe'l 는 습관

1) 가: 바바라 씨, 어제 박물관에 잘 다녀왔어요?

나:.....

2) 가: 마이클 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요?

나:.....

3) 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친구에게 의논 하나요?

나:.....

4) 가: 하숙집 아주머니가 참 친절하신 것 같아요.

나:.....

5) 가: 무슨 일이 있나요?

나: 약속을 잊어버리고 친구에게 연락을 못했어요.

.....

4. Junsok va Jiyonning suhbatini diqqat bilan tinglab, to'g'ri javobni toping.

1) 1. 2. 3.

2) 1. 2. 3.

3) 1. ()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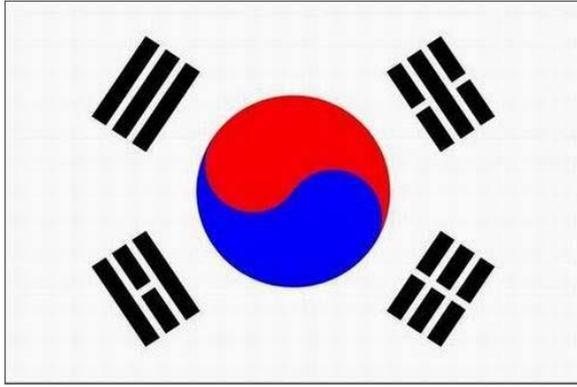
5. Birga suhbatlashib ko'ring.

1) 한국에서의 경험

2) 한국의 관습과 여러분 나라의 관습을 비교해 봅시다.

	한국			
가족				
결혼				
예절				

태극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지난 월드컵대회 기간 중에 거리를 수놓았던 태극기의 물결을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자랑스런 태극기.

태극기에는 어떤 뜻이 담겨있는지 알아보까요?

태극기 전체는 평화(peace, 平和)와 단일(simplicity, 單一), 창조(creativity, 創造), 평등(equality, 平等)을 상징합니다.

태극기 바탕의 흰색은 전통적으로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한민족의 민족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가운데의 ‘원’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동그랗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돌고 돌아도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것은 낮과 밤이 일정하게 반복하면서 생명을 지켜주는 우주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가운데의 무늬를 태극 문양이라고 하는데 파랑색은 하늘을, 빨강색은 땅을 의미합니다.

이 둘은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여 우주의 만물들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만들어지고 발전한다는 진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아래 태극기에 나타나 있는 건 괘는 하늘(天), 봄(春), 동(東쪽, 인(仁)을 뜻하고, 곤 괘는 땅(地), 여름(夏), 서(西), 의(義)를 의미합니다.

또 이 괘는 해(日), 가을(秋), 남(南), 예(禮)를 뜻하며, 감 괘는 달(月), 겨울(冬), 북(北), 지(知)를 의미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 태극기가 이렇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줄은 아마 처음 알았을 것입니다.

10 과 백성들의 도움으로 살아나곤 했대요.

1392 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진 후에 처음 1 세기 동안은 나라가 발전되고 정치가 안정되었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지배 계급인 양반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덕분에 조선 초에는 백성들 모두가 편안하게 지냈다. 그러나 16 세기 초부터 양반들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재산을 모으는 데만 열중하였다. 백성들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져서 고향을 버리고 돌아다니거나 산속에 들어가서 도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임꺽정이라는 의적이 나타난 것은 바로 이러한 때였다.

마이클 : 준석 씨, 임꺽정이라는 조선 시대의 의적에 대해서 아세요?

준석 : 그럼요. 아마 한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임꺽정에 대해서
들어봤을 걸요.

마이클 :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준석 : 그는 원래 천민 출신이었는데 비록 무식하기는 했지만 아주 힘이
세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해요.

마이클 :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둑이 되었어요?

준석 :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도둑이 되었다고 해요.

마이클 : 어떻게 도와주었는데요?

준석 : 부자들의 물건을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대요.

마이클 : 위험하지 않았을까요?

준석 : 물론 위험했겠지요. 몇 번이나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백성들의
도움으로 살아나곤 했대요. 그러나 결국은 잡혀서 사형을 당하고
말았지요.

마이클 : 어려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보려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군요.

새 단어 Yangi so'zlar

고려 Koryo (davlat)	권력 amal
조선 Choson (davlat)	함부로 pala-partish
세기 asr	열중하다 bir ishga berilib
안정되다 osuda, tinch	ketmoq
시대 davr	경우 vaziyat, holat
지배 hokimiyat, boshqaruv,	의적 Robin Gud
계급 sinf	원래 umuman
양반 zodagon	천민 past tabaqa
국가 davlat	비록 bo'lsa ham, lekin
덕분 sharofati bilan	무식하다 savodsiz
초 boshlanish	나누다 bo'lmoq

결국 natija, va nihoyat

이루다 amalga oshmoq

사형 o'lim jazosi

*짜다 sho'r

당하다 개'para kelmoq

해고 ishdan bo'shatish

문법 GRAMMATIKA

1. F-곤 하다

Harakat fe'liga qo'shilib, biror bir harakatni doimiy takrorlanishini bildiradi.

나는 가끔 피곤해서 버스에서 자곤 해요.

2. Ot (에) 들어와서

Otga bog'lanib, biror bir vaqtga kelib, davrga kelib, biror bir vaqtdan boshlab degan ma'nolarni bildiradi.

20 세기에 들어와서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3. Ot 덕분에[으로]

Otga bog'lanib, biror bir ishni kimningdir sharofati bilan amalga oshganligini bildiradi.

선생님 덕분에 이제 한국말을 잘하게 되었어요.

F-(으)ㄴ/는 덕분에 [으로]

Harakat fe'liga qo'shilib, biror bir ishni kimningdir yordami, harakati bilan amalga oshganligini bildiradi.

선생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잘하게 되었어요.

4. F-는 데(에) 열중하다 [열중이다]

Harakat fe'liga qo'shilib, biror bir ishni qilishga berilib ketganlikni bildiradi.

책 읽는 데 열중해서 정류장을 지나갔어요.

5. Fe'l (으)ㄴ/는 경우가 (많이) 있다[없다]

Harakat va sifat fe'llariga bog'lanib, biror bir holat yoki vaziyatni ko'p bo'lishi yoki bo'lmasligi ma'nosida qo'llaniladi.

선생님도 틀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6.F-(으)ㄴ/는 (으)ㄹ 경우에는

Harakat va sifat fe'llari bilan bog'lanib, biror bir vaziyatda yoki holatda degan ma'noni bildiradi.

Misol:

음식이 너무 짠 경우 물을 더 넣으세요.

7. 비록 F-지만

Harakat va sifat fe'llari bilan bog'lanib, shunday bo'lsa ham, lekin degan ma'noda qo'llaniladi.

이 선생님은 비록 나이가 많지만 생각은 젊은이 같아요.

8. F-아/어 다(가)

Harakat fe'liga qo'shilib, biror bir harakatni tugatgandan so'ng, keyingisini qilganligi ma'nosida qo'llaniladi.

케이크를 만들어다 친구에게 선물로 주었다.

어휘와 표현 So'z va iboralar:

당하다 biror bir vaziyatga duch kelmoq, biror bir kimsa tomonidan shunday holatga tushmoq ma'nolarida qo'llaniladi.

그는 젊은 사장에게 해고를 당했다. (젊은 사장은 그를 해고했다.)

연습 Mashqlar:

1. Matnni o'qib, javob bering.

1) 조선 초에 양반들은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 2) 임꺽정이 나타났을 때의 조선 사회는 어땠습니까?
- 3) 임꺽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 4) 그는 가난한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 5) 그가 이루어 보려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 6) 백성들은 임꺽정을 좋아했습니까?

2. Namunaga qarab mashqlarni bajaring.

1) 수영을 잘하다.

가: 어떻게 수영을 잘하게 되었어요?

나: 매일 연습한 덕분에 이렇게 잘하게 되었어요.

1. 한국말을 잘하다

2. 김치를 잘 담그다

3. 몸이 건강하다

4.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다

5. 좋은 하숙집을 구하다

6.

2)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 택시를 타곤 해요.

1. 운전을 할 때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2. 시내에 갈 때 어디에 자주 들러요? ⇒

3. 요즘 어떤 꿈을 자주 꾸니까? ⇒

4. 일요일에 날씨가 좋으면 무엇을 해요? ⇒

5.? ⇒

3) 사다

가: 저 지금 슈퍼에 가는데 뭐 부탁할 것 없어요?

나: 그럼, 우유 하나만 사다 주세요.

1. 빌리다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도서관에서

2. 사다

가: 배가 고프네요.

나: 저도 그래요.

3. 훔치다

가: 의적이 뭐예요?

나: 부자들의 물건이나 돈을

4. 만들다

가: 이 케이크 맛있네요. 미영 씨가 만들었어요?

나: 아니에요.

3. Quyidagi grammatik shakllardan foydalanib, savollarga javob bering.

덕분에	함부로	당하다	비록 fe'l 지만
Fe'l (으)ㄹ 경우에(는)	원래	Ot 에 열중하다	

1) 한국어 공부가 힘든 텐데 계속할 거예요?

..... .

2) 옆집 아저씨가 회사에도 못 나가시고 누워 계시다면서요?

.....

3) 임꺽정은 처음부터 부자들의 물건을 훔쳤나요?

.....

4) 정류장을 벌써 지났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요?

.....

5) 지난 주일에 이사를 했다던데 힘들었지요?

.....

6)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약을 많이 먹는다면서요?

.....

7) 아침에 차가 막히곤 하던데 어떻게 9 시까지 학교에 가세요?

.....

4. Suhbatlashib ko'ring.

1) 다른 나라에도 임꺽정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책에서 읽었거나

여러분 나라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면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라			
질문			
언제 살았던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2) 임꺽정과 같이 좋은 목적을 위해서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5. Quyidagi rasm asosida suhbatlashing.

한국의 집



여러분, 혹시 ‘한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국의 전통식 집을 한옥이라고 하는데, 한옥은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온돌’식 방을 사용했습니다. 또 덥고 비가 자주 내리고 습기가 많은 여름을 지내기 위해 땅에서 약간 떨어진 높이에

나무를 이어서 만든 ‘마루’를 사용했어요. 특히 온돌식 난방은 한국 사람들의 생활에 뿌리깊게 자리잡아, 지금도 집의 겉모양은 서양식이지만 방은 온돌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한옥에서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등

많은 가족들이 함께 살았는데, 이런 가족을 대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로 구성된 소규모의 가족 단위로 삽니다. 이런 가족을 핵가족이라고 하지요.

핵가족이 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이 큰 도시에 많이 살게 되면서 한국에는 한옥 대신에 아파트가 아주 많아졌어요. 아파트는 작은 공간에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고, 또 적은 수의 가족들이 살기 편하기 때문이지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살고 있어요? 또 가족은 몇 명이에요? 여러분의 집과 가족들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11 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울의 고등 학생 가운데 반 이상이 과외를 하고 있고, 한 달 평균 과외 비용은 25 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한 연구소가 서울의 고등학교 남학생 1,2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3 학년 학생 가운데 49%, 2 학년 학생 가운데 52,8%가 과외 수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고등 학생의 반 이상이 과외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와 서초구 같은 강남 지역 학생들은 69% 가 과외를 받고 있으나, 노원구와 중랑구 같은 강북 지역 학생들은 39% 밖에 안 되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 달 과외 비용은 평균 25 만 원으로, 고등 학교 3 개 월 등록금 15 만 2 천 원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또 이 금액은 도시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의 23% 가 되므로 과외비가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50% 이상의 부모가 과외를 시키는 것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EBC, 김정수였습니다.

새 단어 - Yangi so'zlar

가운데-orasida	강북-Xan daryosining shimoliy
과외-qo'shimcha dars	qismi (rayon)
기자-muxbir	상당히-juda
보도-maqola	근로자-ishchi
대상-ob'ekt	실제로-haqiqatdan
나타나다-kelib chiq ya	시키다-buyurmoq
구-rayon	*대부분-ko'pchilik qismi
강남-Xan daryosining janubiy	입시-kirish imtihoni
qismi (rayon)	제도-tizim

원하다-xohlamoq

도시락-ovqat solinadigan idish

심부름-mayda topshiriqlar,

싸다-o'ramoq

vazifalar

보충하다-to'ldirmoq

실시하다-amalda qollamoq

내내-har doim

결과-natija

통계-statistika

응답자-javob beruvchi

시기-belgilangan vaqt

세면 도구-yuvinish anjomlari

단위-bo'lim, bob

휴대폰-uyali aloqa

취업-ishga kirmoq

카세트-kasseta

적당하다-mos kelmoq

자장면-lag'mon

보름-15 kun

초등 학교-boshlang'ich maktab

문법 - Grammatika

1. Ot 에 따라

Odatda otga qo'shilib kelib “

2. Ot (에) 차이를 보이다 [차이가 있다, 차이가 나다]

Otga bog'lanib, bir narsani boshqasiga solishtirganda farqi borligini bildiradi.

백화점과 시장은 물건에 따라 가격에 차이를 보여요.

3. Ot 가운데

Otga qo'shilib, biror bir narsani orasida, ichida degan ma'nolarini bildiradi.

서울 시민 가운데 반 이상이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4. F-(으)L/는 것으로 나타나다 [조사되다, 알다]

Harakat va sifat fe'liga qo'shilib, tadqiqot natijasini aytishda ishlatiladi.

대학생들의 한 달 평균 용돈은 12 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Ot 을/를 대상으로 조사하다 [연구하다]

Otga qo'shilib, biror bir narsa biror bir tadqiqotning ob'ekti ya'ni asosi qilib olinganligini bildiradi.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 값을 조사했다.

6. F-(으)L/는 셈이다

Harakat va sifat fe'liga bog'lanib, biror bir harakat yoki holat shunday bo'lmasa ham lekin shunday hisoblanishini bildiradi.

Misol:

이 자동차가 가격은 싸지만 기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 자동차보다 비싼 셈이다.

6. Fe'l (으)므로- sifat va harakat fe'liga bog'lanib, biror bir harakat nimadir sababli shunday bo'lganligini bildiradi.

Misol:

경제 사정이 나빠졌으므로 취직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7. Ot 을/를 시키다- otga bog'lanib, kimgadir biror narsani buyurganda ishlatidi.

Misol:

동생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Fe'l (으)라고 시키다- harakat fe'liga bog'lanib, biror bir ishni qilishni buyurganda ishlatiladi.

Misol:

어머니는 나에게 약을 사 오라고 시켰어요.

연습- Mashqlar.

1. Matnni o'qib, savollarga javob bering.

- 1) 서울의 고등학생 가운데 몇 % 가 과외를 하고 있습니까?
- 2) 과외 받는 학생을 학년별로 비교해 보세요.
- 3) 지역별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 4) 한 달 과외 비용과 다른 비용을 비교해 보세요.
- 5) 왜 과외비가 심각한 문제가 됩니까?

2. Quyida Seul do'konlarining birida olib borilgan tadqiqot natijasi berilgan. Diqqat bilan tinglab savollarga javob bering.

- 1) ‘휴가 갈 때 세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이라는 질문에 대한 여성

응답자들의 대답으로 맞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1

돈	36%
세면 도구	38%
휴대폰	34%

2

돈	38%
세면 도구	36%
휴대폰	34%

3

돈	34%
세면 도구	36%
휴대폰	38%

2) ‘누구와 같이 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여성 응답자들의 대답으로

맞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1

친구	45%
애인	32%
가족	27%

2

친구	45%
애인	10%
가족	32%

3

친구	45%
애인	10%
가족	27%

3. Diqqat bilan o'qib, javob bering.

1) 여자는 카세트 녹음기를 25,000 원 주고 한 달 전에 샀다. 그런데 벌써 두 번이나 고장이 나서 수리비만 10,000 원도 더 들었다. 영철이는 30,000 원 주고 1년 전에 산 카세트 녹음기가 아직 한 번도 고장이 안 났다. 그럼 누가 싸게 산 셈일까?

2) 형기는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과 자장면을 먹었다. 한 그릇을 나누어 먹었는데 둘이 반반 똑같이 먹었다. 형기는 초등학교 3 학년이다. 누가 더 많이 먹은 셈일까?

3) 어머니는 밤 12 시에 주무시고 우리 도시락을 싸기 위해 새벽 5 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신다. 하지만 아버지는 주로 밤에 소설을 쓰시기 때문에 밤에는 2~3 시간밖에 안 주무시고 그 대신 우리가 학교에 가는 아침 7 시부터 점심 드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주무신다. 밤에 못 주무신 것을 보충하기 위해 오전 내내 주무시는 것이다. 그럼 실제로 누가 더 많이 주무시는 셈일까?

4. Chap va o'ng tomondagi statistik natijalarga qarab, maqola yozing.

<첫 배낭여행 시기>

단위:%	
대학 2 학년	37.5
대학 3 하년	33
졸업 후 취업 전	20

5. Do'stlaringizni obyekt qilib olib, o'zingiz bilishni xohlagan narsalar ustida tadqiqot olib boring.

조사 내용 이름			

6. Yuqoridagi tadqiqot natijasi bo'yicha maqola yozing.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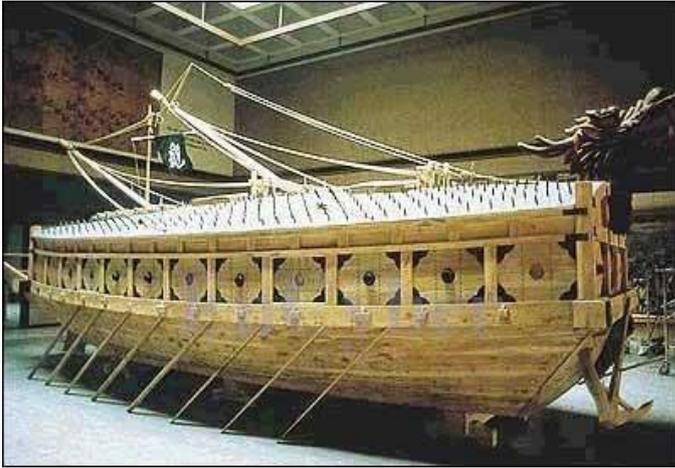
.....

.....

.....

.....

이순신 장군



여러분이 사는 마을이나 도시에도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의 동상이 있어요? 서울에는 제일 번화한 거리인 시청 옆 사거리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이 한국을 자주 침략하던 16세기 때, 주로 한국 남쪽의 바다를 지키는 해군장군이었어요. 특히 이순신 장군은 바다에서 적과 싸울 때 적이 배에 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배에 거북 모양의 뚜껑을 만들고 그 위에 칼이나 창 등을 꽂았는데, 그 모양이 거북을 닮았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 배를 '거북선'이라고 했어요.

일본은 1592년부터 1599년까지 7년 동안이나 한국(당시는 조선)을 침략했는데 이순신 장군은 이때도 거북선을 이용하여 항상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일본군인들은 '이순신'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군이 포기하고 돌아가던 마지막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이 쏜 총에 맞았어요. 이때 이순신 장군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죽음을 부하들이 알게 되면 사기가 떨어지고, 특히 일본군인들이 알게 되면 다시 공격을 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이 혹시 한국에 오시면 시청 옆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꼭 보세요. 보시면 아직도 이순신 장군이 한국을 지키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12 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옛날 어느 산골에 우씨네와 허씨네가 살고 있었는데, 두 집 모두 아들이 둘씩 있었다. 우씨네와 허씨네의 큰아들은 부채를 만들어 팔고, 작은아들은 우산을 팔아 생계를 이어 나갔다. 그런데 우씨네는 큰아들과 작은아들 걱정에 언제나 한숨만 쉬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부채를 팔러 나간 큰아들이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을 것이고, 해가 나는 날에는 우산을 팔러 나간 작은아들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옆집 허씨네는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을 팔고 있는 작은 아들이 신날 것이고, 해가 나는 날은 큰아들이 부채를 많이 팔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허씨네는 비가 오나 해가 나나 함박웃음이 터지고, 우씨네는 비가 와도 해가 나도 마음이 어두운 이유는 무엇일까?

* * *

민석: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지영: ‘한 달밖에’ 라니? ‘한 달이나’ 남았잖아.

민석: 한 달 동안 뭘 하겠어? 난 아무리 생각해도 재수를 해야 할 것 같아.

지영: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한 달 동안에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어.

민석: 너는 머리도 좋고 열심히 했으니까 잘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안

될 게 뻔해. 그냥 포기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게 좋겠어.

지영: 너는 ‘우산 장수와 부채 장수’ 이야기도 안 들어 봤어? 모든

일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민석: 어떻게 다른데?

지영: 한 달이 남았다는 건 일주일밖에 없어서 준비할 수 없는 경우보다

훨씬 낫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민석: 글썄, 잘 할 수 있을까?

새 단어 Yangi so'zlar

생계 kun kechirish uchu mablag'

있다 bog'lamoq

한숨 og'ir xo'rsinish

놀림 hayron bo'lish

웃음거리 mashara bo'lish

끊이다 to'xtamoq, uzilmoq

신나다 shodlanmoq

함박웃음 qattiq kulgu

터지다 yorilmoq

재수하다 qayta imtihon topshirmoq

포기하다 tashlab ketmoq, voz kechmoq

*화제 suhbat mavzusi

자식 farzand

코미디언 komediya

제목 mavzu

떨어지다 imtihondan yiqilmoq

비교하다 solishtirmoq

우거지다 qalin bo'lib o'smoq

시절 davr, vaqt

끝 yakun

가슴 ko'krak qafasi

긍정적 ijobiy

부정적 salbiy

속담 maqol

문법 GRAMMATIKA

1. Fe'l **냐**에 따라 다르다 harakat va sifat fe'llari bilan bog'lanib, biror bir ishni qanday qilinishiga ko'ra natijasining farqliligini bildiradi.

Misol:

똑같은 영화도 누구와 보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요.

2. Ot 거리 otga qo'shilib, biror bir narsaning obykti ma'nosini bildiradi.

Misol:

그런 일은 화젯거리가 될 만한 일이 아니에요.

3. Fe'l (으)나 (으)나 harakat va sifat fe'llari bilan bog'lanib, har ikki holatda ham natija bir xil bo'lishini bildiradi va ikkita sodda gapni bir-biriga bog'laydi.

Misol:

어머니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식들을 걱정하십니다.

4. Fe'l (으)르 게 뻔하다 harakat va sifat fe'llariga qo'shilib, biror bir narsa yoki ishning qanday bo'lishi aniq, yaqqol degan ma'noda qo'llaniladi.

Misol:

저렇게 공부를 안 하니 이번에도 떨어질 게 뻔하지.

연습 Mashqlar:

1. Matnni o'qib, savollarga javob bering.

1) 우씨네와 허씨네의 아들은 무엇을 해서 생계를 이어 나갔습니까?

2) 우씨 부부는 왜 매일 한숨을 쉬었습니까?

3) 허씨 부부는 왜 비가 오나 해가 나나 신이 났습니까?

4) 민석이와 지영이는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5) 민석이와 지영이의 한 달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릅니까?

6) 민석이와 지영이의 생활 태도를 비교해 보세요.

2. Quyidagi gaplarni bog'lang.

1) 다음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 쓰세요.

놀림	산골	생계	웃음거리	한숨	함박웃음
----	----	----	------	----	------

1) 어머니께서 걱정 때문에.....만 쉬십니다.

2) 에 나무가 우거져서 공기가 깨끗합니다.

3) 사람에게는을/를 이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다른 사람의이가 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5) 요즘 우리 집은 기쁜 일로이가 가득합니다.

6)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을/를 받은 적이 있어요?

2) 다음..... 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 맞게 고쳐 쓰세요.

끊이다	신이나다	재수하다	정리하다	포기하다
-----	------	------	------	------

1) 대학 입학 시험에 떨어져서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2) 친구들과 무엇을 할 때 가장요?

3) 시험이 이틀밖에 안 남아서 이제는 알고 있는 것을야 해요.

- 4) 그 광고를 본 사람들의 전화가지 않고 온다.
- 5) 어떤 일이든지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일이
중요하지요.

3) 보기에서 알맞은 표현을 고라에 맞게 고쳐 쓰세요.

가슴이 터지다 배가 터지다 울음이 터지다 웃음이 터지다

- 1) 슬픈 영화를 보다가 마침내아/어 나왔어요.
- 2) 그 파티에서도록 많이 먹었어요.
- 3)(으)르 것처럼 답답할 때는 산에 올라가 보세요.
- 4) 그 코미디언은 얼굴만 봐도아/어 나와요.

3. Quidagi suhbatni bir-biriga bog'lang.

1) 가: 그 사람 결혼했니?

나:(이)라니?

2) 가: 그 학생은나나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나: 그래서 그런지 도서관에서 자주 봤어요.

3) 가: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

나:(으)르 게 뻘해. 지난 번에도 그랬잖아.

4) 가: 외국에서 공부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까?

나:냐에 따라 다르지.

5) 가: 그 친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 안 봐도 뻘해.고 있겠지.

3. Suhbatlashib ko'ring.

1)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누구와 의논합니까?

2) 여러분이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이미지



청소년 여러분은 ‘한국’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태극기? 교통체증? 김치?

아마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의 한 연구소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했는데, 외국 회사의 사장, 외교관, 교수, 신문기자, 은행장 등 지도자 위치에 있는 외국인 213 명을 대상으로 ‘한국 이미지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들은 한국에서 살 때 좋은 점은 첫째, 한국인은 친절하고 정이 많다.

둘째, 역동적이다.

셋째, 안전하다.

넷째, 대중교통이 편리하다.

다섯째, 여성들이 아름답다. 등으로 대답했다고 해요.

또 한국의 가장 좋은 상품은 그 첫째가 휴대폰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동차, 컴퓨터(인터넷), 액정 텔레비전, 김치, 인삼, 김치냉장고의 순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13 과 아빠가 밥을 해 준다고 놀려요

우리는 맛벌이 부부다. 나는 집에서 만화를 그리고 아내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일반 맛벌이 부부와는 달리 내가 집에서 초등학교 1 학년 딸아이의 밥을 챙겨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학교에서 돌아왔다.

아빠: 나래야, 왜 그렇게 시무룩해 보이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나래: 오늘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는 매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신다!” 하고 자랑했어요.

아빠: 그런데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

나래: 그랬더니 “박 나래는요, 아빠가 밥을 해 준대요.” 하면서 막 놀리잖아요.

아빠: 아이구 참. 우리 나래가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구나. 나래야, 그건

친구들이 나래가 부러워서 그런 거야.

나래: 뭐가 부러워요?

아빠: 나래 친구들은 엄마만 음식을 챙겨 주지만 나래는 엄마와 아빠가

모두 음식을 만들어 주니까 그렇지.

나래: 정말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할까요?

아빠: 그럼, 그렇고 말고. 자, 어서 손 씻고 저녁 먹자.

나래: 네, 아빠.

* * *

남편: 여보, 오늘 나래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았나 봐.

아내: 왜요?

남편: 아빠가 음식을 만들어 준다고 자랑했더니 오히려 친구들이 아빠가

밥을 해 준다고 놀린 모양이야.

아내: 그래요? 아빠가 밥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지나

보군요. 사실, 다른 집 아빠들에 비하면 당신이 집안 일을 많이 하는

편이죠.

남편: 그렇다고 집안 일을 모두 내가 맡아 하는 건 아니잖아.

아내: 음식 만드는 일만 당신이 도와 줘도 어딘데요.

남편: 그건 내가 직접 음식 만들어 먹는 일을 좋아하니까 그렇지.

아내: 아무튼 당신은 집안 일에 대한 편견이 별로 없어서 다행이에요.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남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유교적 사고 방식이 지배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 나라가 크면 남녀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더 많이

달라지겠지.

새 단어 Yangi so'zlar

맞벌이 er va xotin ishlaydigan oila 직장 ish joyi

시무룩하다 norozi bo'lmoq

표정 yuz ifodasi

막 endigina

부럽다 havas qilmoq

오히려 qaytanga, teskari

사실 haqiqat

편견 oldindan xulosa qilish

유교적 Konfutsiylik

지배적 boshqaruvchi, egalik

qiluvchi

남녀 평등 ayol va erkakning teng

huquqliligi

*한산하다 bekorchi bo'lmoq

억지로 ataylab

기본적 asosiy

성능 effekt

남녀 차별 jins

사회적 ijtimoiy

문법 GRAMMATIKA

1. Ot 와/과 달리 otga bog'lanib, biror bir narsadan farqli ravishda degan ma'noni bildiradi.

Misol:

나와는 달리 내 동생은 운동을 잘한다.

2. Ot 이/가 부럽다 otga bog'lanib, biror bir narsaga yoki biror kimga havas qilish ma'nosini bildiradi.

Misol:

나는 부자가 부럽다.

Fe'l (으)ㄴ/는 것이 부럽다 harakat va sifat fe'llariga bog'lanib, biror bir harakat yoki holatga havas qilish ma'nosini bildiradi.

Misol:

나는 내 친구가 운동을 잘하는 것이 부럽다.

3. Fe'l **고** **말고(요)** harakat va sifat fe'llariga bog'lanib, so'ralgan savolni tasdiqlash, hamfikrlilik ma'nolarida qo'llaniladi.

Misol: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한 적이 있어요? - 그럼요. 있고 말고요.

4. **그렇다고** fe'l (으)ㄴ/는 것은 아니다 harakat va sifat fe'llari bilan bog'lanib, bundan oldin bajarilgan harakatni shunday bo'lsa ham, lekin aslida unday emasligini bildiradi.

Misol:

컴퓨터를 싸게 샀다. **그렇다고** 성능이 나쁜 것은 아니다.

5. **Ot 만** fe'l 아/어도 어딘데요 ot hamda harakat va sifat fe'llariga bog'lanib, biror bir narsni hech bo'lmaganda shunday bo'lsa ham qaniydi degan ma'noda qollaniladi.

Misol:

설거지만 해 줘도 어딘데요.

어휘와 표현 SO'Z VA IBORALAR

오히려 qaytanga, bunisidan ko'ra ma'nolarini bildiradi.

Misol: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 걷는 것이 오히려 빠르다.

연습 MASHQLAR

1. Matnni o'qib, savollarga javob bering.

- 1) 나래 아빠와 엄마는 무슨 일을 합니까?
- 2) 나래는 왜 아빠가 밥을 챙겨 줍니까?
- 3) 나래는 오늘 학교에서 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까?
- 4) 나래 친구들은 정말로 나래를 부러워했습니까?
- 5) 나래네 집에서는 누가 집안 일을 합니까?
- 6) 나래와 나래 친구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2. Quidagi gaplarni bir-biriga bog'lang.

- 1)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에 넣으세요.

남녀 평등	맛벌이	사고 방식	지배적	직장	편견	표정
-------	-----	-------	-----	----	----	----

1. 비가 오면 등산을 가지 말자는 의견이이다.

2. 사람마다이/가 다르기 때문에 가끔 오해가 생깁니다.
3. 밝은(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화를 낼 수는 없지요.
4. 앞으로는 여자나 남자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부부가 많아질 거예요.
5. 가: 여자만 집안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나: 아직도 그렇게의 사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나요?
- 6.....을/를 자주 옮기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7. 직업에 대한은/는 없어져야 해요.

2)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에 맞게 고쳐 쓰세요.

놀림을 받다 말아 하다 부럽다 시무룩하다 창기다
--

- 1)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으)면 혼자 울었어요.
- 2) 그 사람은 회사의 힘든 일을 거의 혼자.....고 있어요.
- 3) 그 친구가.....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4) 저는 건강하지 못해서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이..... .

5) 전에는 어머니가 모든 걸.....주셨는데 요즘은 어머니가 안

계시

니까 제가 해요.

3. Quyidagi suhbatni bir-biriga bog'lang.

Fe'l 고 말고(요)	그렇다고 fe'l (으)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Ot 와/과 달리 Ot 만 fe'l 아/어도 어딘데요

1) 가: 영미 씨는 운동을 좋아하세요?

나: 아니요. 저는.....

2) 가: 엄마, 이번 제 생일에 컴퓨터 사 주실 거죠?

나: 그럼,.....

3) 가: 오늘도 늦었어요?

나: 네,

4) 가: 남편이 집안 일을 많이 도와 주나요?

나: 네, 그런 편이죠.

5) 가: 아직 교과서의 단어를 50% 정도밖에 못 외웠어.

나: 나는 시험 공부를 시작도 못했어.

4.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진다.’ 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5. Quyidagi mavzu bo'yicha suhbatlashing.

1)우리가 사는 사회의 남녀 차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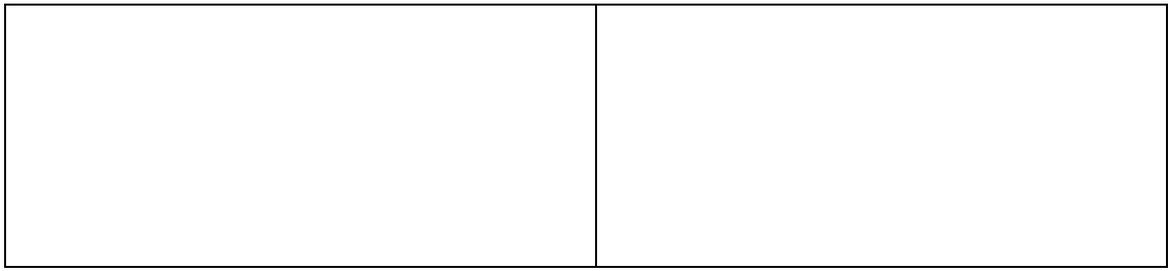
집 안일	
직업	
사회적 편견	(예: 여자가 담배 피우는 것...)

2) 어떻게 하는 것이 남녀 평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우리 사회에서 여자가 주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남자가 주로 하는 직업	여자가 주로 하는 직업



한국의 음식(한정식)



밥이나 국수를 주식으로 하고 채소나 육류 등은 부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2)주식과 부식에 사용되는 재료가 많고, 이에 대한 조리법도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

3)고추, 파, 마늘, 생강을 기본으로 한 향신료의 양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4)간장과 된장으로 음식의 맛을 낸다.

5)명절과 계절에 따른 음식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



1) 밥 (한국음식의 핵심)

한국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밥을 주식으로 하고,
그 외 국이나 반찬들을 부식으로 하는 주, 부식형의 식사 습관이다

밥이 보약이다

2) 제 2의 주식 죽 * 국수

(1)죽

죽도 한국인에게 중요한 음식이다.

배고픈 시절 쑤어 먹던 음식으로 천대받던 죽은 최근에 최고의 영양식으로 재평가 받고 있다.

조선시대에 죽은 보편적인 일상식으로 즐겨 사 먹던 음식이었다.



(2)국수

- 국수는 세계 어디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
- 이탈리아의 스파게티, 베트남의 쌀국수, 중국의 자장면, 일본의 우동이 있다

한국에서는 밀가루, 메밀가루, 녹말가루라는 세 종류의 재료로 다양한 국수를 만들어 먹었다.

